



국회 제주출신 공직자 모임의 멤버인 현은희 실장, 현승철 실장, 고광철 보좌관, 서재만 입법조사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 안에서 오가는 고향 제주의 '정'



<3> 국회 제주출신 모임

국회 제주출신 모임은 대한민국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 소속기관인 사무처·입법조사처·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2년 기준 등록된 인원은 30여 명 정도다.

모임은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20~30대부터 국회에 몸담아 온 고위직 공직자들의 경우 국회와 국회의원의 주요 보직에서 활약 중이다.

소속은 다르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고향의 정을 나누며 서로를 응원해주고, 각 지역의 입법 과제와 현안들이 총성없는 경쟁을 하는 국회에서 제주가 혹시나 소외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남다른 애郷심을 자랑하는 모임이다.

2007년 제23회 입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현승철(4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장이 모임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만난 현 실장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모임"이라며 "만나면 고향 제주 얘기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의 동기인 서재만 국회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조만수 부이사관과 이들보다 앞서 2005년 국회에 입직한 김대은 부이사관은 비슷한 연령대로 국회 모임의 활력을 더하

는 멤버들이다.

서 입법조사관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나누며 중요한 기관에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며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제주 현안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항상 반가운 고향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라고 모임에 대한 애郷을 드러냈다.

국회 보좌진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제주출신 보좌관인 권명호 의원실 고광철 보좌관이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유일한 국민의 힘 소속 제주출신 보좌진인 고 보

좌관은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 시절인 2018년 제주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당 보좌진협의회장에 선출된 인물이다. 오현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를 졸업한 뒤 현대건설의 원의 선거를 돕다가 국회와 연을 맺었는데 그가 보좌한 국회의원만 4명이다. 제19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지낸 정갑윤 의원과는 12년을 함께 했다.

고 보좌관은 "국민의힘 보좌진 중 유일한 제주출신이라 외롭지만 국회 제주 모임이 있어 큰 의지가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도서관의 첫 분관이 자영남권의 첫 국립도서관인 국회 부산도서관 관장으로 부임했다가 최근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으로 복귀한 현은희 이사관은 현재 최고참·최고위직으로서 모임의 만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 실장은 "모임을 갖게 되면 국회 공직자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파견된 협력관, 제주도 서울본부, 국

회에서 활동하는 제주출신 타 부처 관계자들도 모임 때가 많아 자연스럽게 제주 현안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제주 현안이 가장 많이 다뤄지는 국회 행안위를 비롯해 여러 상임위에서 제주출신 공직자가 근무 중이며,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도 6~7명의 제주출신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 모임은 코로나 3년여, 모임의 허리 역할을 하는 70년대생 구성원이 과장·국장급으로 직급이 올라가면서 해외 교육·파견으로 의도치 않게 공백기를 보냈다.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정기모임과 함께 수시로 점심 모임을 갖곤 했다. 한 번 모임에 30명씩은 참여했는데, 사실상 2~3년 동안은 거의 만나지 못한 셈이다. 최근 모임이 강창일 전 주일 대사 퇴임 때였고, 그나마 소규모로 진행했다고 한다. 이제는 모임의 재활성화를 위해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고 보좌관은 "이 모임의 전성기 때는 제주출신 보좌진들도 여야를 넘어 활발히 교류했었다"며 "국회 내에 대구·경북, 강원, 경남, 호남 모임 등 지역별 모임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주 모임도 '제2의 창립'이 필요하다(웃음)"고 바람을 전했다.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영화觀

### 소희의 처음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는 19살, 사회의 문턱을 갓 넘은 10대 여성에게 벌어진 예정된 비극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영화 전반을 걸쳐 콜센터 실습생 김소희의 몇 달간의 여정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그려진다. 술집에서 편견으로 가득한 비겁한 비아냥에 정면 승부를 하던 소희는 회사라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선 뒤 점차 자신을 잃어간다. 소희의 성격이, 태도가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녀가 처음 겪는 더러운 세상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이다. 숫자와 그래프로 서열을 매기는 건 취업률에 전전공공하는 학교도 마찬가지였지만 개인의 수고와 노동에 값은 치러야 하는 회사는 더욱 악랄하게 표정을 숨기는 곳이다. 그곳에선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오직 실적과 관련된 말일뿐이다. 그렇게 거대한 시스템을 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는 일들이 매일 일어난다. 욕설과 비난 사이에서 죽어 나가는 사람이 생기지만 사람이 들고 나는 일의 부피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공간이다. 이런 지옥에서 나의 존재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존재를 애써 지워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이미 겪었을, 숙련된 하나의 부품으로, 어떤 고유의 빛깔도 내지 못하기 위한 훈련이 가속화된다. 소희 또한 이 일이, 자신이 속한 지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원했던 일도 아니고 선택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행운처럼 주어진 일이고 한 명의 개인이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압박 아래서 소희는 처음과는 다른 곳을 향한다. 다른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채로, 숫자와 그래프만 보고 생존하기를 택한 소희는 단순해진다. 일한 만큼 돈을 벌기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한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 소희의 정직한 계산대로 그녀에



영화 '다음 소희'.

게 주어지지만 했다면 아마도 소희는 처음을 잊지 않고 다음으로 내딛을 수 있었을 텐데.

사회 고발 드라마인 동시에 성장 드라마인 '다음 소희'는 소희와 그의 죽음을 추적하는 형사 유진의 이야기를 반으로 쪼개 하나로 만든다. 140분여에 이르는 상영 시간 동안 영화는 꼼꼼하고 촘촘하게 비극의 앞과 뒤를, 옆과 속을 살핀다. 한 개인의 죽음이 비롯된 악의 근원을 찾는 것처럼, 악의 마음을 읽으려는 것처럼 영화는 비장하고 성실하다. 허투루 만들어진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의 죽음이 그저 허를 찌는 한숨이 되지 않기 위해, 그 자체로 아름답고 고유했던 소녀의 비극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 영화는 형사 유진의 몸과 마음을 빌어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쥐고자 한다. 메시지가 분명한 영화이지만 동시에 이 영화를 만든 이들의 뜨겁고 차가웠던 마음의 온도들이 여실히 전해지는 영화이기도 하다. 분노와 안타까움, 체념과 신념이 뒤엉킨 상태에서 이 영진 실타레를 풀기 위해 집요했을 손과 눈의 움직임이 영화 곳곳에서 읽힌다. 다음의 소희가 없기를 바라는 간곡함과 소희의 다음을 만들고자 하는 절실함이 제목에도 어려 있다고 생각한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Gallery ED

〈百里百景〉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展**  
- 가을 따라, 풍광 따라

일시 2023. 2. 21(화) ~ 3.5(일)  
장소 갤러리ED (한라일보 1층)  
관람시간은 10:00~18:00입니다

| 관람문의 | 064-750-2543